

프로농구 올스타 투표 허훈·허웅 형제 1·2위

‘농구 대통령’ 허재의 아들...코로나 여파 올스타전은 개최 안해



허훈



허웅

프로농구 부산 kt의 가드 허훈(26)이 2년 연속 올스타 팬 투표 1위를 차지했다. KBL은 “4일 마감된 올스타 팬 투표 결과 허훈이 3만2642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고 5일 발표했다.

지난해 올스타 팬 투표에서도 1위에 오른 허훈은 이로써 2년 연속 최다 득표의 영예를 누렸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뽑힌 허훈은 이번 시즌에도 어시스트 7.5개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3일 고야 오리온을 상대로는 20점, 15어시스트로 맹활약했다.

허훈의 형인 원주 DB 허웅(28)이 3만1421표를 받아 2위에 올랐다. 허웅 역시 2015-2016시즌과 2016-2017시즌에 2년 연속 올스타 투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허웅, 허훈은 ‘농구 대통령’으로 불린 허재 전 국가대표 감독의 아들이다.

1997년 출범한 프로농구 올스타 팬 투표에서 형제 1, 2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팬 투표 3위는 3만1천217표를 받은 전주 KCC

송교장(25)이다. 올해 팬 투표 1~5위는 허훈, 허웅, 송교장, 양홍석(kt), 김시래(LG) 순으로 지난해 1~5위인 허훈, 김시래, 양홍석, 송교장, 이정현(KCC)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이대현(전자랜드), 박준영(kt), 문성곤(KGC 인삼공사), 아이제이 히스(삼성), 타이러 데이비스(KCC)는 처음으로 올스타에 뽑혔다.

팬 투표 10위 캐디 라렌(LG)은 부상 때문에 빠지고 25위 김현수(삼성)가 최종 올스타 24명 명단에 포함됐다. 팀별로는 kt가 4명으로 가장 많고 DB와 KCC, 전자랜드, 인삼공사, 삼성이 3명씩이다. 오리온과 LG가 2명씩 뽑혔고 SK는 김선형이 유일한 올스타가 됐다.

올해 올스타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 않는다. KBL은 올스타 휴식기인 14일부터 18일까지 KBL TV 채널을 활용해 올스타 선수와 팬들이 직접 소통하고 참여하는 기획 프로그램을 준비해 방송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사막을 극복하라 코스가 험난해 죽음의 경주로 불리는 다카르랠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돼 15일까지 열린다. 43회를 맞는 다카르랠리에서 5일 한 참가자가 사막 언덕을 힘차게 넘고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 쓰고 뛰어도 경기력 그대로네

미국대학농구서 마스크 착용 팀이 안 쓰고 나온 팀 제압

미국대학농구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기에 뛰는 팀이 나왔다. AP통신은 “5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우스터의 홀리크로스대 캠퍼스에서 열린 홀리크로스대와 보스턴대 경기에서 보스턴대 선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경기는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나선 보스턴대가 마스크 없이 출전한 홀리크로스대를 83-76으로 물리쳤다.

최근 미국 위스콘신주, 미네소타주 등 일부 주의 고등학교 경기에서 벤치에 있는 선수들은 물론 경기장에 뛰는 선수들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대학 스포츠까지 마스크 착용 사례가 적용된 셈이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보스턴대와 홀리크로스대는 6일 장소를 보스턴대로 옮겨 다시 맞붙는다”며 “이때는 홈팀 보스턴대 규정에 따라 남자 경기에서도 양 팀 선수들이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보도했다. ESPN은 “이 경기는 양 팀 선수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뛰는 첫 번째 남자 대학 농구 경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P통신은 “현재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는 경기 도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일부 여자 대학 선수들은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지역 신문 파이오니어 프레스는 미네소타주와 위스콘신주 등 인근 주의 고교 선수들의 경기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에 대해 “미국 소아외과 학회(AAP)에서 레슬링, 수영, 다이빙, 체조, 치어리딩 등 질식의 위험이 있는 종목 제외 학생 스포츠의 경기 및 연습 때 얼굴 마스크를 할 것을 추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지방체육회 법인화로 전남체육 독립 기틀 마련”

안병욱 전남도체육회 행정지원처장 취임

안병욱(사진) 전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이 도체육회 행정지원처장으로 취임했다. 전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는 고재영 전 행정지원처장의 후임으로 안병욱 전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이 취임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 출신인 안 행정지원처장은 1988년 나주시청을 시작으로 F1대회조직위원회 기획부장, 강진군 부군수,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을 역임했다. F1대회 지원본부와 조직위원회를 거치면서 메이저 스포츠대회 유치 등 체육행정을 주도했다.

전남체육회는 안 처장의 취임으로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와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또 30여년 공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남도와 소통을 강화, 스포츠로 건강한 정정분부 전남을 만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안병욱 행정지원처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스포츠 활동의 다양화 등 뉴 노멀 스포츠 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장 큰 현안 사업인 지방체육회 법인화 전환에 힘을 쏟아 전남체육이 독립할 수 있는 기틀을 튼튼하게 다지겠다”고 말했다.

‘당구장 사장님’서현민 프로당구 PBA 첫 우승



서현민(웰컴저축은행·사진)이 프로당구(PBA) 투어에서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 서현민은 지난 4일 서울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PBA-LPBA 투어 3차전 NH농협카드 챔피언십’ 결승에서 서삼일을 세트 스코어 4-0(15-6 15-12 15-6 15-11)으로 누르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서현민은 앞선 대회까지 8강에서만 3번 좌절했지만, 마침내 8강 벽을 넘고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서현민은 기본기가 뛰어나 세트제로 진행되는 상위 라운드에 빠짐없이 오른 선수로, PBA의 모범생으로 꼽힌다.

정상에 오른 서현민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당구장 사장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가게 사정이 어려워진 가운데 거둔 우승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진짜 간절하게 우승을 원했기에 우승 후 눈물이 났다”며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영입이 어려워지면서 우승이 간절했던 것도 있다. 그만큼 연습도 많이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현민은 우승 상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 /연합뉴스

광주시배드민턴협회장에 홍성길 후보 당선

“엘리트·생활체육 고루 발전 노력”

광주시체육회는 제2대 광주시배드민턴협회장에 홍성길(59·사진) 후보가 당선됐다고 5일 밝혔다.

홍 당선인은 시체육회 인준을 받아 앞으로 4년 동안 협회장직을 맡는다. 그는 2016년 체육단체 통합 당시 초대 배드민턴협회장을 지냈다.

지난해 광주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시민대상(체육 부문)을 수상했다. 지역 배드민턴 선수 육성을 위해 헌신하고 생활체육 동호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평가받아 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그는 지난 2017년부터 광주코리아마스터즈 국제 배드민턴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등 전국 최초로 같은 지역에서 잇따라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기록을 남겼다.

홍성길 당선인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배드민턴 종목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시민에게 다가가는 협회를 만들고, 더 낮은 자세로 소통과 화합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